

## 재미동포 아동 대상 한국어 교재 분석을 통한 문화 교육 및 교재 구성 방안

남소현\*

**요약** 본고는 재미동포 아동을 대상으로 한 한국어 교재 분석을 통해 문화 교육 내용의 적절성을 검토하고 교재 구성 방안을 제시하는 데 목적을 두었다. 재미동포 아동 대상 문화 교육은 아동들의 자아 정체성을 견고히 다질 수 있도록 하며, 다문화 사회에서 적극적으로 수용적인 태도로 살아가는 데에 기여한다. 또한 자신감을 고취하고 언어 및 문화에 대한 개방적인 태도를 함양하여 한국어에 대한 지속적인 흥미를 유발한다. 그런데, 현실적인 한계로 문화 교육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아 언어 교육과 병행할 수 있는 문화 교육 내용 및 체계를 보완할 필요가 있었다. 이에 따라 재미동포용 언어 교재에서의 문화 교육 내용의 보완점을 파악하여, 문화 교육 및 교재 구성 방안을 제안하기로 하였다. 분석 결과, 아동의 시각을 반영한 문화 항목과 적절한 상호문화주의적 접근은 장점으로 평가되었다. 다만 아동에게 적합하지 않은 일부 내용, 활동으로 활용하기 어려운 교재의 내용 및 지침, 시각 자료로 한정된 자료 구성, 다른 기능과의 연계 부족은 개선이 필요한 사항으로 확인되었다. 이에 본고는 구체적인 보완 방안을 제시하고, 문화 교육 단원을 재구성하는 실재를 통해 개선 방향을 고안하였다.

**주요어** 재미동포, 재미동포, 한국 문화, 문화 교육, 계승어로서의 한국어 교육

\* 연세대, 국어국문학, 박사과정, sohyuni@yonsei.ac.kr

## 1. 서론

‘재외동포’란 외국에 거주하는 대한민국 국민을 말한다. 전 세계 재외동포의 수는 2023년 기준 약 708만 명으로, 그 수는 미국과 중국, 일본 순으로 많다. 그 중에서도 미국에는 약 262만 명의 재외동포가 거주 중으로 이는 전체의 36.9%의 비율을 차지하는 수이다(외교부 2025).

한국어 교육 분야에서는 성인 학습자를 대상으로 연구가 진행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박혜경 2013: 237), 외국에서 태어나거나 어린 나이에 해외로 이주하게 되어 한국에서 한국어 학습의 경험이 없는 아동들이 늘어나면서 재외동포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한국어 교육으로 연구 범위가 확대되었다(정다운 2020: 237). 재외동포 아동의 경우, 성인 한국어 학습자들과는 달리 정체성 확립이라는 중요한 동기와 목적을 가지고 계승어로서의 한국어를 학습한다는 특징이 있다(김태진 2014: 100). 재외동포 아동들을 위해 균형 잡힌 언어 환경을 조성하여 거주 국가의 언어와 계승어로서의 한국어를 동시에 습득할 수 있게 돕는다면 재외동포 아동들은 이중언어 구사자로 성장할 수 있다. 그렇지만 균형 잡힌 언어 환경을 조성하기란 쉽지 않은 일이다. 따라서 거주국의 언어가 아닌, 계승어로서의 한국어를 배우기 위해서는 재외동포 아동들을 위한 현실적이고 전문적인 특수 목적 한국어 학습 교재와 수업이 필수적이다.

재외동포 아동을 위한 한국어 교육에서는 특히 문화 교육의 역할이 중요하게 여겨진다. 재외동포 학습자들의 경우, 한국어에 대한 학습 동기가 비교적 적고 정체성의 혼란을 겪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문화 교육을 통해 한국어에 흥미를 갖게 하고 친밀감을 형성시켜 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공하림 2017: 43). 이렇듯 재외동포를 위한 한국어 교육에서 다루는 문화 교육은 제2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육에서 다루는 문화 교육보다 그 필요성이 더욱 강조되며, 이는 재외동포 아동을 위한 한국어 교육에 문화 교육 항목이 필수적으로 포함되어야 한다는 점을 시사한다.

그러나 재외동포 아동을 대상으로 한 대부분의 한국어 교재는 문화와 관련된 내용을 다루지 않거나 단원의 마지막에 [문화] 영역을 추가적인 요소로 덧붙여

제시하는 정도에 그친다. 이러한 현실적인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재외동포 아동 대상 한국어 교육 기관에서는 한국 문화를 가르칠 수 있는 다양한 행사를 마련하여 학습자들의 흥미를 돋우고 있다. 다만 본고에서는 언어 학습과 문화 학습이 분리되지 않고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언어 교재에서의 문화 제시 방안에 대한 본질적 논의의 필요성을 지적하는 바이다.

일반목적 학습자들과 비교했을 때 재외동포 아동들에게 제시하는 문화 교육은 '아동'이라는 학습자 대상의 연령대에 적합해야 하며 정체성 확립을 위해 민족성을 강조한 내용이 주로 선정되는 경향이 있다. 이를 고려하여 기존 재외동포 아동용 대상 교재에서 다루는 문화 요소가 적합한 특성을 반영하고 있는가에 대해 검토하고자 한다. 또한 특별히 본고에서는 가장 많은 재외동포가 포진되어 있는 미국의 재외동포 아동을 위한 문화 교육에 초점을 맞추어 논의를 진행하고자 한다. 이에 따라 본고의 연구 목표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재외동포 아동을 위한 언어 교재에서의 문화 교육 요소를 분석하고 적절성을 검토한다.

둘째, 재외동포 아동을 위한 효과적인 문화 교육의 방안 및 교재 구성을 제시한다.

## 2. 재외동포 아동 대상 문화 교육

### 1) 재외동포 아동 대상 문화 교육의 중요성

최근 상호문화 이해를 도모하고자 문화 교육을 강조하는 연구들이 늘어나는 추세이지만, 일반목적 한국어 교육에서 문화 교육은 언어 교육을 위한 일종의 도구적 역할로 제한되어(이수지·권화숙 2017: 186), 그 중요도가 재외동포 학습자 대상 한국어 교육에서 다루는 문화 교육의 중요도와는 확연한 차이가 있다. 특히 재외동포 아동에게 문화 교육은 다음의 세 가지 이유로 중요성이 강조된다.

첫째, 재외동포 아동 대상 문화 교육을 통해 정체성 형성에 도움을 줄 수 있다. 어린 시절에 이민을 간 재외동포 1.5세대와 국외에서 출생한 2, 3세대는 거주 국가의 언어정책 및 사회문화적 맥락에 따라 한국어를 배울 경험이 없거나 적다. 이러한 문제로 1.5세대 이상의 재외동포 중에서는 한국어 구사 능력이 낮고 계승어 사용자로서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인식이 불분명한 경우가 다수 발견된다(이정란·이해영 2014: 268; 전한성 2020: 205). 특히 재외동포 아동들의 경우, 가정에서는 한국어를 사용할 수 있지만 외부에서는 현지어를 사용한다는 특징이 있는데 현지어를 사용하면서 접하게 되는 인종 및 문화의 차이는 아동들의 정체성 혼란을 유발할 수 있다. 또한 가정에서 경험하는 한국 문화와 학교나 또래 집단, 대중매체를 통해 습득하게 되는 현지의 문화가 충돌하면서 일반적인 아동보다 더 복잡한 정체성 형성 과정을 겪게 된다(이유경 2015: 244). 특히 아동들은 성장하는 과정 중 자연스럽게 자신이 다른 주류 아동들의 집단에 속하지 않으며 주류 아동들과는 다르다는 것을 여러 경로를 통해서 느끼고 인식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피부색이나 생김새와 같은 신체적 차이점은 취학 전 아주 어린 아동 시기에도 인식할 수 있다(성상환 2010: 43). 이때 아동의 문화적, 인종적 배경에 대한 자존감을 제대로 심어주지 않으면 아동 시기를 지나 청소년이 되고 성장하면서 심리적으로 불안한 문제를 겪기 쉽다.

성상환(2010)에 따르면 재외동포 아동들이 단체생활이나 조직 생활에 더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문화적이고 인종적인 배경을 긍정적으로 인식하게끔 유도한다면 재외동포 아동들은 정서적으로 안정된 청소년 시기를 보낼 수 있다. 특별히 인종 및 민족적인 정체성과 다양성에 대한 개념을 발전시키는 것은 어린 시절 발달 단계부터 이루어지기 시작하기 때문에(성상환 2010: 43) 문화 교육을 성장기 아동 시기에 적절하게 제공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더 나아가 지민정(2016)에 따르면 재미동포 중 자신의 정체성을 한국인이라고 인식하는 학습자들이 미국인이라고 인식하는 학습자들에 비해 학습 동기가 강하고 외국어 능숙도도 뛰어나다. 즉, 재외동포 중에서도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이 분명한 사람일수록 한국어 사용의 두려움이 적고 다양한 언어를 사용하는 것을 타고난 재능으로 여기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지민정 2016: 296-297). 따라서 아동의

발달 시기에 정체성을 바르게 유지하고 형성하기 위하여 적절한 한국 문화 교육을 제공해 주는 것은 재외동포 아동들의 자신감 형성, 언어에 대한 개방적인 태도를 기르는 데에도 기여한다.

둘째, 문화 교육을 통해 한국어 교육의 흥미 유발이 가능하다. 가정 내에서 한국어를 잘 사용하던 재외동포 아동들도 학교에 들어가게 되면 한국어 사용이 줄어들는다. 이는 가정 외의 모든 상황에서 현지어가 사용되며, 특히 학교에 입학하여 또래 집단과 어울리게 되면서 현지어가 아닌 언어를 사용하는 상황인 아이들에게는 부정적으로 인식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학교 교육을 통해서 현지어는 꾸준하게 발전하지만 한국어는 그 수준에 맞춰 발전하지 못하면서 한국어 사용이 자연스럽게 줄어드는 문제나 아동들이 학령기에서 벗어나면서 학업이 중요해져 한국어 교육을 포기하는 상황도 발생한다(정다운 2020: 423-424). 이러한 경우, 학습자 본인의 동기가 확고하게 만들어져야만 한국어 교육이 지속될 수 있다. 그렇지만 아동 학습자들의 특성상 부모의 의지에 따라 한국어 교육을 받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아동 학습자들에게 강한 학습 동기를 심어 주어 능동적으로 교육을 지속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이때 문화적 요소를 적절하게 제시하여 학습자들이 한국과 한국어에 흥미를 갖게 하고 친밀감을 형성하여 자발적인 한국어 교육 참여가 가능하도록 할 수 있다(공하림 2017: 43).

셋째, 문화 교육을 통해 다문화 사회 적응에 도움을 줄 수 있다. 과거에는 재외동포들의 인적 가치를 언급하며 한국 사회에 미칠 잠재적 영향력으로 민족적 측면의 중요성을 강조한 반면, 최근에는 다문화적인 관점이 강조되고 있는 세계의 경향에 따라 상호문화주의적 관점에서 바라보는 문화 교육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상호문화주의적 관점에서 재외동포 대상 한국어 교육은 문화적 다양성의 가치에 대해 인식하게 하며 혼종적 문화 현상들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게 한다. 즉, 재외동포 아동들에게 문화 교육을 하는 것은 거주국의 문화와 더불어 자신의 인종적 배경이 되는 언어와 문화를 습득하게 하여 이질적 문화에 대한 적극적 수용 능력을 배양해주는 데 일조할 것이라는 관점이다(전한성 2020: 213). 이처럼 문화 교육을 통해 재외동포 아동들이 개방적이고 수용적인 태도로 다문화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다는 가치를 확인할 수 있다.

## 2) 재미동포 아동 대상 문화 교육의 현황

재외동포 아동들을 대상으로 한국어 교육을 진행하는 대표적인 기관은 ‘한글학교’이다. 재외동포청에 따르면 2024년 기준, 전 세계에 1,405개의 한글학교가 운영되고 있으며<sup>1</sup> 학생수는 총 94,121명이다. 그중에서도 북미 지역에는 692개의 한글학교와 45,445명의 학생이 존재하며, 이는 전체의 48%에 달하는 비율로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한다(재외동포청 2025a). 재미동포의 이주 역사가 긴 만큼 재외동포 중에서도 재미동포가 차지하는 비율이 높고, 그만큼 한국어를 배우고자 하는 학생들도 많은 것이다. 재미동포들은 한국에 있는 친인척뿐만 아니라 함께 거주하고 있는 가족과 정서적으로 분리되지 않기 위해서 한국 문화에 대한 습득이 필수적이다. 하지만 재미동포 1.5세대 이상의 부모들은 한국 문화에 대한 경험과 지식이 매우 제한적이기 때문에 가정 내에서 아동들에게 한국 문화를 가르치기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유아, 유치, 초등학교 저학년 시기부터 한국어 교육 기관에서 한국어와 한국 문화에 대한 체계적 교육을 받고 경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이정희 2015: 157-158). 실제로 한글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을 분석한 결과, 초등학교 연령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며 그다음 참여율이 높은 것은 유치원생이다(이화숙·김남경 2018: 135). 이렇듯 재외동포 한국어 교육 학습자들 중 아동 연령대의 참여율은 비교적 높은 편이다. 그렇지만 한글학교는 의무로 다녀야 하는 곳이 아니고 일주일에 한 번, 주말에만 수업이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학습 동기가 부족한 학생들이 많고 교육 시간 또한 매우 한정적이라는 한계가 있다(정다운 2020: 421).

이처럼 재외동포를 위한 한국어 교육은 다수의 기관을 통해서 비교적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하지만 문화 교육 측면에서만 보면 중요성에 비해 실질적인 문화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그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살필 수 있다. 첫째, 문화 교육에 할애되는 시간이 많이 부족하다. 대체적으로 재외동포 아동들은 주말을 이용하여 일주일에 한 번만 수업을 받는

1 재외동포청 홈페이지에 ‘한글학교 현황’이 집계되어 있으나 목록을 보면 ‘한국학교’도 포함되어 있다.

경우가 많고 언어 수업에서 문화 수업을 일부 다루는 정도로 수업이 이루어지고 있어, 현실적으로 문화 교육에 집중적으로 할애되는 시간은 상당히 적은 편이다. 둘째, 문화 교육이 양적으로 매우 가볍게 다루어지고 있다. 이는 앞서 지적한 첫 번째 한계와 관련되는데, 문화 교육에 할애되는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양적으로도 가볍게 다루어지는 결과로 이어진다고 볼 수 있다. 공하림·부수현(2016)에서는 대표적인 재외동포 아동용 교재인 『맞춤 한국어』(이하 〈맞춤〉)의 언어권별 문화 항목 분석을 진행한 바 있다. 이에 따르면 〈맞춤〉의 각 단원은 6~8쪽 분량이며, 모든 단원이 끝나는 마지막에 ‘문화’ 영역을 배치하였는데 이를 활용하여 한국어 교육을 진행한다면 현실적으로 주 1회 수업 3~4시간 중 문화 교육에 할애하는 시간은 매우 적거나 거의 없는 수준이다(공하림·부수현 2016: 46).

이러한 현실에 따라, 재외동포 아동 대상 교육 기관에서도 문화 교육에 할애되는 부족한 교육 시수를 보완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한글학교의 학사 일정을 보면 한국 문화 체험을 할 수 있는 여러 교내 행사들이 마련되어 있다. 1학기(가을)에는 추석을 맞이해 송편을 만들고, 교가와 애국가를 부르는 대회를 개최한다. 한국어로 진행되는 글짓기 및 백일장 대회도 열리고 있어 학습자들은 기존 교육 시간 이외의 문화 활동에 참여할 수 있다. 2학기(봄)가 되면 설날 행사를 포함한 동화 구연, 시낭송, 낱말경연대회가 열린다. 또한 학예회나 ‘나의 꿈 말하기 대회’와 같은 국내 교육과정에서 볼 수 있는 학사일정도 확인할 수 있다(재외동포청 2025b). 이처럼 국내의 교내 문화를 적용하여 한국의 문화에 익숙해질 수 있게끔 교육하고, 한국의 문화를 경험할 수 있는 다양한 행사를 기획하고 있다는 점에서 문화 교육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노력하고 있는 국외 한국어 교육 기관의 현황을 확인할 수 있다.

### 3. 재미동포 아동 대상 교재 분석 방법

#### 1) 분석 대상

재미동포 아동을 대상으로 한 교재를 분석하기 위해 『맞춤 한국어 영어권』(이하 <맞춤 영어권>)을 분석 대상 교재로 선정하였다. <맞춤 영어권>은 한글학교에 다니는 재외동포 아동을 대상으로 한 교재로 1권부터 6권까지 초등학교 저학년 아동들에게 맞춰 구성된 교재이다. <표 1>은 ‘일러두기’에서 밝히고 있는 각 권의 대상 학습자의 나이 설정을 정리한 것이다.

표 1. 『맞춤 한국어 영어권』 급수별 학습자 나이

급수	나이
1권	5-6세
2권	7-9세 <sup>2</sup>
3권	9-10세
4권	10-11세
5권	
6권	

자료: 교육과학기술부와 국립국제교육원이 발간한 맞춤 한국어 1~6권(2011)

단원의 마지막 장으로는 한국 문화를 소개하는 ‘문화 배우기’ 장이 배치되어 있다. ‘문화 배우기’ 영역은 학습자 모어로 된 설명문을 제시하고, 시각 자료를 활용해 학습자의 이해를 돕는 형식으로 문화를 소개한다는 특징이 있다. 다음의 <표 2>는 분석 대상 교재의 ‘문화 배우기’ 영역에서 급수별로 제시하고 있는 문화 항목을 정리한 것이다.

2 2권의 ‘일러두기’에서 ‘초등학교 저학년’을 대상으로 한다고 밝히고 있으나 앞선 1권에서 ‘5-6세’를, 3권에서는 ‘9-10세’를 학습자 나이로 특정하고 있어 편의를 위해 ‘7세’부터 초등학교 2학년에 해당하는 ‘9세’까지를 2권의 대상 학습자로 임의 설정하였다.

표 2. 『맞춤 한국어 영어권』의 급수별 문화 항목

급수	문화 항목
1권	한글, 인사, 태극기와 성조기, 한국의 배와 서양배, 한옥, 밥과 빵, 온돌
2권	서울과 워싱턴, “우리” 가족, 한국의 동요-뽀뽀뽀, 5월의 특별한 날들, 밥상과 식탁, 불고기와 김치, 제기차기, 한국의 사계절, 종이접기, 금도끼 은도끼, 한국의 동요-나비아, 연날리기, 숫자 4, 한국의 동요-곰 세 마리, 사랑해요, 최고
3권	아파트와 한옥, 애완동물, 호돌이와 샘, 판소리와 오페라, 축구와 야구, 투호와 말굽던지기, 운동회, 도서관, 문방사우, 4대문, 서울과 뉴욕, 한국의 학제, 한복과 노리개, 한국의 국립 공원, 인사동, 학원
4권	아리랑, 한지, 태권도, 대학교, 한국의 축제, 나로우주센터, 한국의 화폐, 기념일, 설날과 추석, 사물놀이, 물놀이 공원, 제주도, 63빌딩과 엠파이어스테이트빌딩, 청와대, 위대한 세종대왕, 12마리 동물
5권	한국의 국가, 재미있는 어휘게임-끝말잇기, 별명, 장래 희망, 특별한 날, 생일 문화, 전통 놀이, 재미있는 이모티콘, 뽀로로와 미키마우스, 화폐와 인물, 한국의 대중문화, 혈액형과 성격, KTX와 Acela Express, 자리 양보 문화, 젓가락 사용법, 한국의 유명한 섬
6권	한국의 수수께끼, 떡볶이와 핫도그, 도깨비, 엄마 손은 약손, 몸짓 언어, 고추장과 케첩, 한국의 전통놀이-딱지치기, 숫자의 의미, 콩쥐팥쥐와 신데렐라, 주소 쓰기, 한국인의 이름, 소셜 네트워크, 하회탈, 한복 접기, 한국의 악기, 세뱃돈

본고에서는 <표 2>에 제시된 문화 교육 항목을 중심으로 개선점을 파악하고, 필요에 따라 교사용 지침서 및 언어 학습의 내용을 참고하여 다각도에서 문화가 제시되는 양상을 살필 것이다.

## 2) 분석 기준 및 절차

본고는 분석 대상 교재인 <맞춤 영어권>의 ‘문화 배우기’ 영역을 중심으로 재미동포용 한국어 교재에서 문화 제시가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 확인하고, 재미동포 아동 대상 문화 교육을 교재 내에서 어떻게 구성하여야 하는지에 대해 다섯 가지 기준으로 나누어 살필 것이다. 다음의 <표 3>은 교재 분석을 위해 마련한 문화 영역 분석 기준이다.

표 3. 교재 문화 영역 분석 기준

분석 기준	세부 기준
내용의 아동 적합성	1) 한국에 대한 포괄적인 이해를 돕는 항목이 선정되었는가? 2) 의사소통과의 관련성이 높은 문화 항목이 선정되었는가? 3) 전통문화 중 아동들에게 흥미가 있을 만한 항목이 선정되었는가? 4) 또래 집단의 한국 문화 항목이 선정되었는가?
활동의 아동 적합성	1) 아동의 경험과 관련된 활동인가? 2) 아동의 내재적 동기를 유발하는 활동인가? 3) 아동의 발달 단계에 적합한 활동인가?
자료의 아동 적합성	1) 자료에 시각 및 청각 자료가 함께 제시되었는가? - 시각 자료가 주제를 직관적으로 보여주는가? - 상황에 맞는 시각 자료(사진 또는 그림)가 선택되었는가? - 시각 자료의 색상이 다양하여 학습자의 흥미를 유발하는가? 2) 활동을 위한 보조 자료가 제공되는가?
상호문화적 관점의 반영 정도	1) 현지 문화와 현지 언어를 모두 포함하도록 구성되었는가? 2) 현지 문화와 한국 문화의 공통점과 차이점이 제시되었는가? 3) 한국과 현지에서의 중요한 문화적 요소로 구성되었는가? - 문화 항목이 '내용의 아동 적합성'에 해당하는가?
다른 기능과의 연계 정도	1) 문화 영역은 언어 기능 학습과 통합되어 나타나는가? 2) 문화 영역은 어떠한 언어 기능을 취하여 제시되는가? - 문화 영역 제시에 각 언어 기능(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의 연계가 나타나는가? 3) 언어 학습에서 문화 항목을 주제나 소재로 활용하는가?

교재 분석의 기준 마련을 위해서 다음의 선행 연구를 검토하였다. 먼저 공하림·부수현(2016)은 재외동포 교육용 한국어 교재 문화 요소 구성을 위해 다음과 같은 다섯 가지 방안을 제안하였다.

① 공하림·부수현(2016)의 재외동포 교육용 한국어 교재 문화 요소 구성 방안 첫째, 재외동포 학습자들의 현지 문화와 현지 언어를 모두 포함하도록 구성한다.

둘째, 현지 문화와 한국 문화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알 수 있도록 구성한다.

셋째, 재외동포 학습자들의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내용으로 구성한다.

넷째, 해당 문화가 학습자에게 적용될 수 있도록 다양한 활동과 예를 제시하

도록 구성한다.

다섯째, 한국과 현지에서의 중요한 문화적 요소를 바탕으로 구성한다.

이러한 제안을 바탕으로 재외동포 아동용 교재에서 문화를 다룰 때는 아동 학습자라는 학습 대상의 나이대를 고려하여 문화 교육을 구성하고, 상호문화적 관점을 바탕으로 문화 항목을 선정해야 함을 확인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아동 적합성’을 기준으로 삼아 교재를 분석할 것이며, 이를 세부적으로 나누어 ‘내용’, ‘활동’ 그리고 ‘자료’에 대한 아동 적합성을 분석할 것이다. 또한 공하림·부수현(2016)의 다섯 가지 방안을 바탕으로 ‘상호문화적 관점의 반영 정도’를 분석할 것이며, 분석 대상 교재가 통합교재인 만큼 ‘문화 영역이 다른 언어 기능과 어느 정도로 연계’되어 있는지 살펴볼 것이다.

각 분석 기준에 대한 세부 기준은 다음과 같은 근거를 토대로 마련되었다. 먼저 ‘내용의 아동 적합성’은 김정숙(2008)의 선행 연구를 참조하여 기준을 마련하였다. 해당 연구에서는 재외동포 대상 문화 교육을 위하여 한국과 한국 문화에 대한 관심을 갖고 친밀도를 높일 수 있는 항목 선정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다음의 네 가지 문화 항목 선정 기준을 제안했다.

#### ② 김정숙(2008)의 한국 문화 항목 선정 기준

첫째, 한국에 대한 포괄적인 이해를 돕는 항목(한국의 상징물, 한국의 도시, 한국의 음식)을 선정한다.

둘째, 의사소통과의 관련성이 높은 문화 항목(한국인의 인사법, 한국어의 높임법)을 선정한다.

셋째, 전통문화 중 아동들에게 흥미가 있을 만한 항목(설날 풍습)을 선정한다.

넷째, 또래 집단의 한국 문화(한국 아이들의 놀이, 한국의 동요)를 선정한다.

이러한 네 가지 기준이 ‘내용의 아동 적합성’ 분석을 위한 문화 영역의 문화 항목 분류 기준으로 적용될 수 있다. 특별히 아동이라는 학습자 연령대를 고려하여 ‘활동의 아동 적합성’과 ‘자료의 아동 적합성’을 판별하기 위한 세부 기준 마련을 위해 아동 교육 관련 논문을 참조하였다. 먼저 이성은·오은순(2002)은 Goodman(1986)의 총체적 언어 교육의 원리를 근거로 하여 초등학교 국어교

육에 적용될 수 있는 총체적 언어 활동 구성 원리 15가지를 제시했다. 그중 문화 교육에 초점을 맞춰 해당 연구에 필요한 기준으로 ‘아동의 경험과 관련된 활동’, ‘아동의 내재적 동기를 유발하는 활동’, ‘아동의 발달 단계에 적합한 활동’이라는 세 가지를 선정하여 적용하기로 하였다.

또한 아동 교재의 중요한 평가 요소로 삽화와 디자인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최혜정(2015)은 유아교육 기관에서 사용하는 다양한 영어 교재 중 영어 그림책 류가 가장 교육의 효과가 높았다는 연구 결과를 보여주었고, 직관적 사고에 의존하는 아동의 발달적 특성상 아동이 영어 습득을 더욱 효과적으로 성취할 수 있도록 반드시 삽화가 수록되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임현혁·최재혁(2012)은 교재 내 디자인으로의 시각 자료를 크게 사진과 그림으로 나누어 그 장점을 정리하였다. 이에 따르면 ‘사진’의 경우 사실성과 정밀성을 표현하는 데에 적합하고, ‘그림’은 추상적이거나 정서적인 상황을 표현하는 데에 적합하다. 교재를 제작할 때는 상황에 맞게 시각 자료를 선택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또한 한아름 외(2009)는 아동 완구에 대한 색채 선호도를 연구하는 과정에서 색채는 아동에게 감각적 정보와 동기를 제공하고 시각적인 호기심을 자극한다는 점을 언급했다. 이에 따라 아동 학습자의 흥미를 유발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색상의 시각 자료가 제공되어야 함을 알 수 있다. 더 나아가 최혜정(2015)은 유아 영어 교재는 도서 형태의 인쇄물만으로는 교재의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없으며 다양한 활동과 교구재, 오디오 테이프, 비디오테이프, 씨디롬 등의 보조물들을 함께 제공해야 한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이에 근거하여 ‘자료의 아동 적합성’을 판단하기 위해 ‘시각 자료와 청각 자료가 제공되었는지’를 확인할 것이다. 특히 시각 자료의 경우 아동 학습자의 이해도를 고려하여 ‘주제를 직관적으로 보여주고 있는지’, ‘상황에 맞는 시각 자료(그림 또는 사진)가 선택되었는지’ 그리고 ‘색상이 다양하여 흥미를 유발하는지’를 확인할 것이다. 또한 ‘활동을 돕는 보조 자료가 제공되는지’도 함께 살펴볼 것이다.

‘상호문화적 관점의 반영 정도’는 ①에서 소개한 공하림·부수현(2016)의 문화 요소 구성 방안을 바탕으로 설계되었다. 세부 기준은 총 세 가지로, 현지 문화 및 현지 언어의 포함 여부, 현지 문화와 한국 문화의 비교 및 대조 가능 여부,

그리고 문화 요소의 중요도에 관련한 것이다. 다만, '한국과 현지에서의 중요한 문화적 요소'라는 분석 기준에서 중요도를 관별하는 기준이 모호하여 주관성을 배제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첫 번째 분석 기준인 '내용의 아동 적합성'의 네 가지 세부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문화 항목을 '중요하지 않은 문화 항목'으로 처리하기로 하였다.

'다른 기능과의 연계 정도'에서는 문화 영역의 독립 여부와 제시 방식을 기준으로 교재를 살펴볼 것이다. 광경숙(2020)은 문화 항목의 제시 방식을 분석하는 기준에 대해 문화 독립·분리 영역의 유무와 명칭, 문화 독립·분리 영역에 제시된 문화 유형, 문화 제시 방식, 과정 중심 방식, 상호문화적 관점의 교수학습 방식이라는 다섯 가지를 제시하였다. 그리고 언어 중심 영역에서 문화 항목을 제시하는 방법으로 다음의 다섯 가지를 제안하였다.

### ③ 광경숙(2020)의 언어 중심 영역에서 문화 항목을 제시하는 방법

첫째, 문화 항목을 주제나 소재로 활용한다.

둘째, 언어와 문화의 통합을 통해 문화를 제시한다.

셋째, 시각 자료를 활용한다.

넷째, 토론과 역할극을 활용한다.

다섯째, 문화적 문맥을 활용한다.

해당 연구에서 제안된 다섯 가지 방안은 언어 기능과 문화의 통합 여부를 확인하는 기준으로 활용될 수 있다.

## 4. 재미동포 아동 대상 교재 분석 결과

### 1) 내용의 아동 적합성

'내용의 아동 적합성'은 급수별 문화 항목의 주제를 통해 파악하고자 한다. 앞서 <표 2>에 제시된 문화 항목을 <표 3>의 내용의 아동 적합성 분석 기준에 따라

정리하면 다음의 <표 4>와 같다.

표 4. 내용의 아동 적합성 기준에 따른 급수별 문화 항목

기준	문화 항목
포괄적 이해	1권: 밥과 빵, 온돌, 한국의 배와 서양배 2권: 서울과 워싱턴, 5월의 특별한 날들, 밥상과 식탁, 불고기와 김치, 한국의 사계절, 숫자 4 3권: 4대문, 한국의 국립 공원, 서울과 뉴욕, 인사동 4권: 한국의 축제, 한국의 화폐, 기념일, 제주도, 청와대, 위대한 세종대왕, 12마리 동물, 대학로, 63빌딩과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5권: 특별한 날, 생일 문화, 화폐와 인물, 한국의 대중문화, 자리 양보 문화, 젓가락 사용법, 한국의 유명한 섬, KTX와 Acela Express, 혈액형과 성격 6권: 떡볶이와 핫도그, 고추장과 케첩, 숫자의 의미, 주소 쓰기, 한국인의 이름
의사소통	1권: 인사 2권: “우리” 가족, 사랑해요, 최고 5권: 재미있는 이모티콘 6권: 몸짓 언어
전통문화	1권: 한글, 태극기와 성조기, 한옥 2권: 제기차기, 연날리기 3권: 아파트와 한옥, 투호와 말굽 던지기, 판소리와 오페라, 문방사우, 한복과 노리개 4권: 아리랑, 한지, 태권도, 사물놀이, 설날과 추석 5권: 한국의 국가, 전통 놀이
또래 집단	2권: 한국의 동요-뽀뽀뽀, 종이접기, 금도끼 은도끼, 한국의 동요-나비야, 한국의 동요-곰 세 마리 3권: 호돌이와 샘, 운동회, 한국의 학제, 학원 4권: 나로우주센터 5권: 재미있는 어휘게임-끝말잇기, 별명, 장래 희망, 뽀로로와 미키마우스 6권: 한국의 수수께끼, 엄마 손은 약손, 콩쥐팥쥐와 신데렐라
기타	3권: 애완동물, 축구와 야구, 도서관 4권: 물놀이 공원 6권: 소셜 네트워크

먼저 ‘포괄적 이해’에 해당하는 항목은 한국의 대표적인 현대 문화 항목이라고 할 수 있다. 나머지 세 가지 기준에 부합하지 않지만 성인 대상 한국어 교육에서도 다룰 수 있는 중요한 문화 항목을 해당 기준으로 구분하였다. ‘의사소통’에는 언어 및 비언어적 한국의 의사소통에 해당하는 문화 항목을 추가했다. ‘전

통문화'의 경우 현대 일상에서는 향유하지 않는 고유한 전통문화를 비롯하여 태극기 및 애국가와 같이 민족성이 강조되는 문화 항목을 해당 기준에 부합한다고 판단했다. 마지막으로 '또래 집단' 기준에는 학습자의 나이가 아동에 한정된 만큼 그 나이 또래가 공통적으로 향유하는 동요나 동화, 학교생활과 관련된 문화 항목을 추가했다. 또한 성인 대상 한국어 교육에서는 다루지 않는 문화 항목이지만 아동과 관련이 되는 항목을 해당 기준으로 분류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네 가지 기준 중 어디에도 부합하지 않는 항목을 '기타'로 구분하였다. 이는 상대적으로 중요하지 않은 문화 항목으로 다른 문화 항목으로의 대체가 필요하다.

〈표 4〉에 따르면 전반적으로 아동들의 눈높이에 맞춘 주제가 마련되어 있음을 알 수 있으나 세부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기타 항목이 포함되어 있고, 대체로 '포괄적 이해' 기준에 부합하는 문화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어 문화 항목을 균일하게 보완해야 한다. 특히 본 교재는 재외동포 아동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민족성을 강조하는 문화 항목이나 학습자의 나이대에 맞는 항목을 주로 제시하여 일반목적 한국어 교육의 문화 교육과 차별점을 두어야 한다. 이에 따라 '포괄적 이해' 항목의 일부를 '전통문화'나 '또래 집단'으로 분류되는 문화 항목으로 대체할 필요가 있다.

또한 단원의 주제와 유기적으로 연결되지 않는 문화 항목이 많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아동 학습자들의 경우, 배경 지식이 전무한 상태에서 언어 학습을 한다는 전제를 고려해야 하며, 앞서 배운 내용과 연관된 문화를 가르치는 것이 학습 내용의 이해도를 높이는 데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또는 재외동포 아동이라는 학습자 특성을 고려한다면, 문화 교육을 선행하여 한국의 문화적인 특성을 먼저 알게 한 후에 언어 학습으로 연결하는 것도 효과적일 수 있다.

급수별 특성을 고려해 문화 항목의 양상을 살펴보자면, 우선 1권에서는 기초적인 한글 교육을 주로 하기 때문에 제9과까지는 한글의 자모음과 음절 구성 방법을 학습한다. 그리고 제10과부터 문화 영역을 비롯한 문법과 어휘 학습이 등장한다. 제10과는 '한글'의 역사에 대해 다루며 그 이후 한국의 대표적인 현대 문화와 태극기와 같은 기초적이고 민족성 강조한 문화가 제시된다. '한국의 배와 서양배'라는 항목은 상대적으로 중요도가 떨어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단원의 주

제가 ‘과일’이기 때문에 언어 교육과 문화 교육의 유기성이 강하다고 판단하여 기타 항목으로 구분하지 않았다.

2권의 경우 문화 항목 주제가 네 가지 세부 기준별로 비교적 균등하게 마련되었고, 기타 항목으로 분류된 항목이 없다는 점에서 다른 급수에 비해 적절한 구성이라고 할 수 있다. 다만, 2권은 초등학교 저학년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한 교재인데, 문화 항목으로 선정된 동요들은 학령기 이전의 아동에게 더 적합하다고 생각된다. 한국인들이 즐겨 부르는 동요는 좋은 문화 교육 요소이지만, 학습자의 나이대에 적절하고 주제에 맞는 동요로 대체할 필요가 있다. 제14과의 경우, 서수를 가르치는 단원으로 문화 학습 내용으로 <곰 세 마리>라는 동요를 배우는 것은 유기성이 있다고 판단되어 유의미하다고 볼 수도 있다.

3권에는 ‘의사소통’과 관련된 문화 항목이 없으며 기타 항목으로 분류되는 문화 항목이 비교적 많은 편이다. 기타 항목으로 ‘애완동물’, ‘축구와 야구’, ‘도서관’을 선정했는데, 해당 주제들은 보편적이기 때문에 한국의 문화가 특징적으로 드러나지 않을뿐더러 내용적 측면에서도 영미권의 문화와 대조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았다. 이에 따라 3권의 경우 기타 항목을 삭제하고 의사소통과 관련된 문화 항목을 추가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제12과의 ‘한국의 학제’라는 문화 항목은 9세, 10세의 학습자들이 이해하기 다소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다른 주제로의 교체를 고려해야 한다.

4권의 문화 항목은 대체로 ‘포괄적 이해’ 기준에 부합하는 것들로 이루어졌다. 특별히 ‘나로우주센터’라는 주제는 한국의 초등학교 과학 교과서에 나오는 주제로, 성인 대상 한국어 교육에서는 과학과 관련된 주제가 아니라면 문화 교육에서 해당 주제를 가르치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하여 ‘또래 집단’으로 구분했다. 다만, 이러한 기술 발전에 관련된 주제는 시의성이 따르기 때문에 내용 수정 및 추가가 필요할 것이다.

5권부터는 전반적으로 초등학교 저학년부터 고학년으로 올라가는 학습자에게 맞는 문화 항목으로 구성되었다. 5권의 경우에도 ‘포괄적 이해’에 해당하는 문화 항목이 다수 마련되어 있다. 그렇지만 기타 항목으로 분류되는 문화 항목이 없다는 점에서 문화 영역이 적절하게 구성되었다고 볼 수 있다. 6권 또한 전

반적으로 문화 항목이 잘 구성되어 있다. 다만 문화는 사람들의 일상적인 경향을 반영하는데 유행에 따라서 쉽게 변화하는 특성이 있어 교재에 문화 항목을 반영하기 위해선 시의성에 따라 쉽게 변하지 않는 항목을 선정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6권의 제12과에는 ‘네이트온’이 등장하는데 2025년 기준으로 해당 소셜 네트워크는 한국 사람들이 거의 사용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시의성이 떨어진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를 피하기 위해 새로운 문화 항목을 선정할 때는 다른 문화권에서 발견할 수 없는 한국만의 특수성이 강조되는 항목이나 학습자 나이대에 맞는 항목으로 교체해야 한다.

## 2) 활동의 아동 적합성

‘활동의 아동 적합성’은 문화 항목의 주제가 학습자의 직접적인 활동과 긴밀히 연결될 수 있다고 판단되는 항목을 통해 분석하고자 하며, 교사용 지침서의 문화 영역과 연계된 활동을 참고해 살피기로 한다. 우선 다음의 <표 5>는 문화 항목 중 ‘노래’, ‘동화’, ‘놀이’에 해당하는 것들을 분류한 것이다.

표 5. 노래, 동화, 놀이에 관련된 문화 항목

급수	문화 항목
2권	제기차기, 연날리기, 한국의 동요-뽀뽀뽀, 종이접기, 금도끼 은도끼, 한국의 동요-나비아, 한국의 동요-곰 세 마리
3권	투호와 말굽 던지기
4권	아리랑, 사물놀이
5권	한국의 국가, 전통 놀이, 재미있는 어휘 게임-끝말잇기
6권	한복 접기, 한국의 전통 놀이-딱지치기, 한국의 수수께끼, 공쥐팔쥐와 신데렐라

‘노래’와 ‘놀이’가 문화 항목으로 나오는 경우 학습자들은 실제로 노래를 부르거나 놀이에 참여할 수 있다. 그리고 동화는 문화 영역에서의 소개를 읽고 실제 동화책을 함께 읽어보는 활동으로 연결 지을 수 있다. <표 5>에 따르면 1급에는 활동과 연결할 수 있는 문화 항목이 없다. 1권의 경우 7개의 단원 안에서 가장

기초적인 한국 문화를 다루어야 한다는 제한이 있어 ‘노래, 동화, 놀이’와 같은 항목을 다룰 수 없었을 것으로 추측된다. 그런데, 2권에 있는 동요들은 1권의 대상 학습자들에게 더 적합한 것으로 판단되며 이를 1권에 배치하면 학습자 흥미 유발에 효과적일 것이다.

〈표 3〉에서 제시한 세부 기준에 따라 위의 문화 항목을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직접적 활동이 가능한 문화 항목 중 아동의 경험과 관련된 활동은 찾아볼 수 없다. 그렇지만 대체로 아동들의 내재적 동기를 유발하며 해당 나이대 학습자들의 발달 단계에 적합하다고 판단된다. 특히 동요나 동화에 해당하는 문화 항목은 대상 학습자의 나이를 고려한 항목들로 아동들의 호기심을 유발하며 내재적 동기를 활성화한다고 볼 수 있다. 놀이와 관련된 문화 항목 중 ‘제기차기’, ‘한복 접기’ 등과 같은 종이접기 활동은 실제로 색종이를 사용해 활동해 볼 수 있도록 내용을 제시하고 있다. 종이접기 활동은 손목과 팔을 움직여 진행되는 활동으로 자연스럽게 눈과 손의 협응을 필요로 하는 것이며 이를 통해 아동의 뇌의 활동도 활성화한다(이정민 외 2013: 98). 또한 ‘끝말잇기’, ‘수수께끼’와 같은 놀이도 아동들이 한국어를 활용해 계속해서 뇌를 사용하게 하여 아동의 발달 단계에 적합한 활동이라고 볼 수 있다.

이처럼 〈맞춤 영어권〉의 문화 영역에는 특별한 활동이 연계되어 나타나고 있지만 몇몇 단원에서 주제 자체를 활동으로 활용할 수 있음을 확인했다. 다만, 교재에서 특정한 활동이나 과제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교사의 추가적인 지도가 필요할 것이다. 특히 거의 모든 단원의 문화 영역이 읽기만으로 제시되어 있어 아동 학습자에게 지루함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아동 학습자의 내재적 동기와 한국 문화에 대한 호기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양한 활동과 과제가 필요하다. 교재 내에 다양한 활동을 추가할 수 없다면 교사가 추가적인 학습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교사용 지침서에 문화 교육에 대한 활동의 내용을 충분히 반영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

실제 〈맞춤 영어권〉의 교사용 지침서에 문화 교육의 방안이 제시되어 있다. 다만 대체로 단순한 활동과 간략한 지침만이 제시되고 있어 구체적인 안내가 없다는 점이 아쉽다. 예를 들어, 제기차기에 관련한 내용을 다룰 때 단순히 ‘게임은

해본다'로 지침을 줄 것이 아니라 제기를 만들 수 있는 학습 자료를 제공해 주면 좋을 것이다. 또한 활동에서 제기로 할 수 있는 게임으로 무엇이 있을지 학습자에게 질문하기보다는 지침서를 통해 교사에게 안내할 필요가 있고, 만약 지침서에 제기차기를 활용한 게임이 설명된다면 교사는 실제 수업에서 게임을 소개하고 학습자들에게 게임을 하도록 유도하여 학습 흥미를 높일 수 있을 것이다.

### 3) 자료의 아동 적합성

'자료의 아동 적합성'의 세부 기준으로 청각 자료와 관련한 내용이 설정되어 있으나 <맞춤 영어권>의 문화 영역은 청각 자료가 제공되지 않는다. 이에 따라 '자료의 아동 적합성'은 시각 자료의 예시를 통해 파악하고자 한다.

<맞춤 영어권>의 문화 영역은 대체로 주제를 직관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사진을 제시하지만, 주제를 객관적으로 드러낼 수 없거나 놀이 방법을 설명하는 경우 등 필요에 따라서는 그림 자료를 제시하기도 한다. 이러한 특징에 따르면 주제와 상황에 맞는 시각 자료를 적절히 선택하여 제공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림 1. 『맞춤 한국어 2 영어권』 제10과 문화 항목

자료: 김선정 외(2011b)



그림 2. 『맞춤 한국어 2 영어권』 제8과 문화 항목

자료: 김선정 외(2011b)

〈그림 1〉은 사진 자료의 예시를 보여준다. 해당 단원에서는 다양한 색상이 강조된 사진 자료를 통해 사계절에 대한 직관적인 이해를 돕고 있다. 반면 〈그림 2〉는 그림 자료의 예시를 보여준다. 해당 단원의 문화 항목으로 한국의 전래동화인 〈금도끼 은도끼〉를 배우고 있다. 이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다양한 색상으로 그려진 동화의 한 장면이 그림으로 삽입되었다. 특히 지면의 부족으로 많은 내용이 포함되기 어려운 경우, 동화의 내용 중 가장 중요한 장면을 효과적으로 표현한 자료를 선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러한 관점에서 〈그림 2〉의 시각 자료는 그림 자료의 제시 상황에서 고려해야 할 부분을 충분히 잘 반영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그림 3〉 또한 그림 자료의 예시를 보여준다. 해당 단원에서는 ‘끝말잇기’를 소개하고 있으며, 놀이를 처음 해 보는 학습자들을 위해 그림으로 게임의 방식을 보여주고 있다. 아동 학습자들은 글로 설명된 게임 진행 방식을 잘 이해하지 못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그림 자료를 제공하는 것은 아동 학습자의 흥미 유발뿐만 아니라 내용 이해 측면에서도 효과적이다.

위의 분석을 통해 〈맞춤 영어권〉의 시각 자료는 세 가지 세부 기준을 모두 충



표 6. 현지 문화와 한국 문화를 비교하는 급수별 문화 항목

급수	문화 항목
1권	태극기와 성조기, 한국의 배와 서양배, 밥과 빵 (3/7개)
2권	서울과 워싱턴, “우리” 가족, 밥상과 식탁 (3/16개)
3권	호돌이와 샌, 판소리와 오페라, 투호와 말굽던지기, 도서관, 서울과 뉴욕, 한국의 학제 (6/16개)
4권	나로우주센터, 기념일, 설날과 추석, 물놀이 공원, 63빌딩과 엠파이어스테이트빌딩, 청와대, 12마리 동물 (7/16개)
5권	한국의 국가, 재미있는 어휘게임-끝말잇기, 별명, 재미있는 이모티콘, 뽀로로와 미키마우스, 화폐와 인물, KTX와 Acela Express, 자리 양보 문화 (8/16개)
6권	떡볶이와 핫도그, 도깨비, 몸짓 언어, 고추장과 케첩, 숫자의 의미, 콩쥐팥쥐와 신데렐라, 주소 쓰기, 소셜 네트워크 (8/16개)

〈표 6〉을 통해 영미권의 문화가 언급된 문화 항목의 주제를 확인할 수 있다. 1권부터 3권까지는 현지 문화와의 대조가 적게 나타나지만, 4권부터는 한 과의 절반 이상에서 현지 문화가 언급되며 상호문화적 관점에서의 대조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맞춤 영어권〉은 재외동포 학습자들의 현지 문화와 현지 언어를 모두 포함하도록 구성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대체로 상호문화적 관점의 반영을 위해 한국 문화와 영미권 문화를 함께 소개하고 있다. 그리고 ‘한국의 배와 서양배’, ‘밥과 빵’처럼 이를 고려한 주제 배치도 확인할 수 있다. 급수 중에서도 특히 5권에서 한국과 미국 문화의 대조가 잘 이루어졌음을 파악했다.

다만, 전통문화를 다루는 단원에서는 대체로 미국 문화에 대해 언급하지 않는다는 점이 눈에 띈다. 전통문화와 또래 문화에서의 일부 항목은 대조가 어려울 수 있다. 그렇지만 현대 문화 항목에서는 가능하다고 생각하며, 한국의 현대 문화 소개에서 영미권 문화가 언급되지 않은 경우 내용을 추가하면 좋을 것이다. 전통문화 또한 영미권의 문화와 비슷한 것을 찾아 소개할 수 있다. 예를 들어, 3권의 문화 항목 중 ‘문방사우’를 소개할 때 미국에서 ‘만년필’을 사용하는 문화를 언급하여 대조를 시도할 수 있다.

또한 〈맞춤 영어권〉은 공통점보다는 각국 문화의 차이점을 기반으로 문화를

제시하고 있다. 예를 들어, 제2과에서 ‘우리’라는 대명사를 사용하는 한국 문화와 일인칭 대명사를 사용하는 미국 문화의 차이점을 설명한다. 제5과에서도 한국과 미국의 주식 및 밥상 문화의 차이를 설명한다. 다만, 두 과에서 모두 양국의 문화적 공통점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더 나아가 교사용 지침서에도 차이점에 기반한 문화 학습을 도울 수 있는 지침을 제공하고 있다. 다만, 어떠한 질문으로 학습자들을 가르쳐야 할지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지 않아 단편적인 지침에 그친다는 단점이 있다. 또한 상호문화적 관점에서 문화를 다룬다는 명목으로 거주국 문화에 대해 학습자가 대답하게끔 유도하는 지침이 제시되어 있는데, 나이가 어린 학습자들이 거주국의 문화를 얼마나 잘 알고 대답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든다. 학습자가 대답하지 못할 경우를 대비하여 교사용 지침서에는 주제와 관련된 학습자 문화에 대한 정보가 수록되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한국과 현지에서 중요한 문화적 요소를 포함하였는지를 확인하고자 한다. 여기서 말하는 ‘중요성’에 대한 판단 기준은 앞서 ‘내용의 아동 적합성’에서 판단하였던 기준을 참조하여 적용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따라 <표 4>에서 ‘기타’ 항목으로 분류하였던 문화 항목은 모두 중요하지 않은 문화적 요소라고 해석할 수 있다. 다음의 <표 7>은 아동의 적합성 기준에 맞지 않는 문화 항목을 정리한 것이다. 다음의 문화 항목은 한국과 미국에서 모두 중요하게 여기는 새로운 문화 항목으로의 대체가 필요할 것이다.

표 7. 아동 적합성에 맞지 않는 급수별 문화 항목

급수	문화 항목
3권	애완동물, 축구와 야구, 도서관
4권	물놀이 공원
6권	소셜 네트워크

결과적으로 <맞춤 영어권>은 특히 미국에 거주하는 아동들에게 맞추어 문화 항목을 선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중요도가 높은 문화 항목을 선정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해당 분석에서 ‘중요성’을 판단하는 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점은 한계로 지적할 수 있다. 문화 항목의 중요성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정규 교육 과정에서 사용하는 교과서를 활용할 수 있다. 국내 교과과정의 주제 및 영미권 아동 대상 언어 교재의 주제를 항목화하여 문화 항목의 중요도를 구분한다면 이에 대한 분석이 더욱 명확해질 것이다.

## 5) 다른 기능과의 연계 정도

〈맞춤 영어권〉의 문화 영역은 앞서 언급한 것과 같이 언어 기능 학습과 통합되지 않고, ‘문화 배우기’라는 독립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문화 배우기’ 영역은 영어로 된 설명문과 간단한 시각 자료를 활용하여 학습자의 이해를 돕는 형식으로 문화 항목을 소개한다는 특징이 있다. 이는 곧 문화 영역이 언어의 네 가지 기능 중 ‘읽기’를 취하여 제시되고 있다고 할 수 있으나 내용이 한국어로 구성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상 다른 기능과의 연계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판단할 수 없다.

‘일러두기’에서는 한국어와 영어로 문화 소개란을 제시하였다고 밝히고 있지만 사실상 문화 영역 내용은 영어로만 제시하고 있다.<sup>3</sup> 그리고 교사용 지침서에서 한국어로 번역된 지문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는 교사가 활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문화 내용이 ‘한국어’로 제시되었다고 할 수 없다. 이처럼 문화 영역 제시 방식에 있어 언어 기능과의 연계가 고려되었다고 볼 수는 없지만, 언어 수준이 낮은 영어권 학습자들을 위해 영어로 한국 문화를 제시하는 것은 학습자들이 부담 없이 문화를 습득하는 데에 도움을 준다는 장점으로 작용하기도 한다. 더 나아가 언어 학습에서 문화 항목을 주제나 소재로 활용하는지를 살피기 위해 본교재의 언어 학습 내용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다음의 〈표 8〉은 언어 학습 활동 중 한국적 요소가 활용된 활동만을 정리한 것이다.

3 〈맞춤〉의 ‘일러두기’에서 밝힌 교재의 구성 방식은 다음과 같다: 학습자들이 영어권 어린이들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본문을 제외한 모든 학습 내용과 연습 활동의 지시문, 문화 소개란의 지문을 한국어와 영어로 제시하였다.

표 8. 문화 관련 언어 학습 활동

급수	단원 제목	언어 학습 활동
3권	제15과 서울에 갔어요	[도입] 서울 방문 관련 글 읽기 및 듣기 [들어 봐요] 서울 방문 관련 이야기 듣기 [읽어 봐요] 경복궁에 다녀온 여행기 읽기
4권	제8과 음악회가 며칠이에요?	[이야기해요] 학교 축제에서 한국을 소개하는 말하기
	제10과 서울은 날씨가 좋아요	[들어 봐요] 한국에 있는 친구에게 전화 통화로 한국 날씨 전해 듣기
5권	제11과 저도 아는 노래예요	[연습해요] 한국 문화와 관련된 내용으로 문장 완성 연습하기
	제16과 다음에 또 가고 싶어요	[도입] 제주도 방문 관련 글 읽기 및 듣기 [이야기해요] 한국의 관광지 중 여행 가고 싶은 곳 선택하여 말하기 [읽어 봐요] 부산 여행 후 작성된 이메일 읽기
6권	제2과 내가 할 줄 알아	[읽어 봐요] 떡볶이 만든 경험에 대한 일기 읽기
	제8과 한번 입어 보세요	[읽어 봐요] 동대문 시장 설명문 읽기
	제9과 예쁜 꽃이 많을 것 같아요	[도입] 재래시장에 가는 것이 좋은 이유 읽기 및 듣기
	제13과 민속촌에 가 봤어?	[도입] 민속촌 체험 관련 대화 읽기 및 듣기 [이야기해요] 한국의 음식, 놀이, 여행지, 전래동화 중 선택하여 추천하는 발표하기 [읽어 봐요] 경주로 가는 수학여행 안내문 읽기
	제14과 한복 패션쇼에 가기로 했어	[도입] 한복 패션쇼 및 한복 관련 설명 대화 읽기 및 듣기 [이야기해요] 여러 나라의 전통 의상에 대해 이야기하기 [읽어 봐요] 전통 결혼식 체험 관련 일기 읽기
	제15과 가야금을 배우려고 합니다	[도입] 한국 문화 수업 안내 읽기 및 듣기 [연습해요] 한국 문화와 관련된 내용으로 예/아니오 대답 연습하기 [이야기해요] 한복, 한국 민요, 한국 악기, 한국 음식에 관한 경험이 있는지 친구와 묻고 답하기 [들어 봐요] 한국 문화 수업 신청 관련 듣기 [읽어 봐요] <아리랑>을 배운 후 작성된 일기 읽기 [써 봐요] 한국 문화 중 배우보고 싶은 것 계획 쓰기
	제16과 즐거운 추석이에요	[도입] 추석 관련 지문 읽기 및 듣기 [이야기해요] 새해에 어른들에게 덕담 받는 문화를 따라 친구와 덕담 주고받기 [읽어 봐요] 설날 관련 신문사글 모집 공고 읽기 [써 봐요] 한국의 4대 명절 조사 후 소개글 쓰기

1권과 2권에는 한국 문화와 연계된 언어 학습 활동이 등장하지 않는다. 하지만 6권으로 갈수록 그 빈도가 늘어나는 편이고, 특히 6권의 단원 중 마지막 두 단원인 제15과와 제16과는 한국 문화가 단원의 주제로 기능하여 단원 전체에서 한국 문화와 연계된 활동을 제시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다만, 6권의 일부 단원을 제외하면 문화 요소가 언어 기능 학습과 연계된 활동이 거의 없는 편이기 때문에 <맞춤 영어권>은 전반적으로 문화와 다른 언어 기능과의 연계가 부족한 교재임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문화 지문을 한국어로 제시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1권과 2권의 경우, 비교적 언어적 능력이 낮은 학습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급수의 특징상 문화와 언어 기능을 본격적으로 연계하기는 어렵다. 하지만 어휘나 대화 지문에서 한국적 요소를 추가하는 간단한 제시 정도는 가능할 것이다. 그리고 학습자의 나이대와 언어 능력이 본격적으로 높아지는 5권부터는 영어로 설정된 메타언어의 전환을 시도할 필요가 있다. 문화 영역에 한국어로 된 지문을 제시하고 영어 번역을 부록에 수록한다면 현재 부족한 언어 기능과의 연계가 보충될 것이다. 단, 이때는 학습자의 수준에 맞춰 언어를 구성하는 것이 필수적이고 학습자가 처음 보는 개념어에 대한 설명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이밖에 교사용 지침서에는 학습자에게 문화 항목에 관련된 여러 질문을 던지고 대화할 수 있도록 지침을 주고 있는데 이러한 특성을 살려서 교재를 재구성한다면 ‘말하기’ 기능과도 연계가 가능할 것이다. 또한 <맞춤 영어권>의 도입 제시 방식을 따라 청각 자료를 함께 제공하는 것도 언어 기능과의 연계 방안이 될 수 있다. 이러한 문화 학습과 언어 기능과의 연계를 통해 학습자는 더 효과적인 언어 및 문화 습득이 가능해질 것이다.

## 5. 재미동포 아동 대상 문화 항목 구성 실제

앞서 상호문화적 관점의 반영 정도를 확인하기 위해 문화 항목이 양국에서 중

요한 항목인지를 분석하였는데, 기준이 다소 모호하여 이를 보완하기 위해 실제 교과서 및 언어 교재를 활용하여 교육의 주제를 대조할 필요가 있음을 지적했다. 이는 학습자 연령대에 적합하고 또 중요한 문화 항목을 선별하는 데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이다. 본 장에서는 국내의 교과과정을 활용하여 <맞춤 영어권> 3권의 문화 항목을 재구성해 보고자 한다. <맞춤 영어권> 3권의 학습 대상은 초등학교 2학년과 3학년으로 선정되어 있다. 2학년과 3학년이 학습하는 과목 가운데 특히 '사회' 과목은 한국 문화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고 판단하여 해당 과목이 운영되는 초등 3~4학년의 사회과 교육과정을 살펴보면 다음 <표 9>와 같다.

표 9. 초등 3~4학년 사회과 교육과정의 중주제

중주제	
(1) 우리가 살아가는 곳	우리 고장의 모습 우리가 알아보는 고장 이야기 교통과 통신 수단의 변화
(2)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	환경에 따라 다른 삶의 모습 시대마다 다른 삶의 모습 가족의 모습과 역할 변화
(3) 우리 지역의 어제와 오늘	지역의 위치와 특성 우리가 알아보는 지역의 역사 지역의 공공 기관과 주민 참여
(4) 다양한 삶의 모습과 변화	촌락과 도시의 생활 모습 필요한 것의 생산과 교환 사회 변화와 문화 다양성

2015년에 개정된 현행 교육과정은 3학년과 4학년의 교육과정 내용을 함께 제시하고 있지만 <맞춤 영어권> 3권은 2학년과 3학년을 대상으로 하는 한국어 교육 교재라는 점을 고려하기 위해 위의 중주제에서 이해하기 쉬운 수준의 주제만 선정해 살펴보고자 한다. 우선 다음 <표 10>은 <맞춤 영어권> 3권의 목차와 문화 항목을 정리한 표이다.

표 10. 『맞춤 한국어 3 영어권』 목차 및 문화 항목

	목차	문화 항목
제1과	우리 가족입니다	아파트와 한옥
제2과	나는 강아지를 좋아해요	애완동물
제3과	미나는 눈이 예뻐요	호돌이와 샘
제4과	음악회에 자주 안 가요	판소리와 오페라
제5과	내 취미는 야구하기예요	축구와 야구
제6과	아빠하고 축구를 해요	투호와 말굽던지기
제7과	나는 야구도 좋아해요	운동회
제8과	도서관에 자주 가요	도서관
제9과	한국어를 공부해요	문방사우
제10과	옆 건물에 있어요	4대문
제11과	우리 집에 오세요	서울과 뉴욕
제12과	우리 동네에는 가게가 많아요	한국의 학제
제13과	기념품을 선물해요	한복과 노리개
제14과	경치가 아름다웠어요	한국의 국립공원
제15과	서울에 갔어요	인사동
제16과	저는 초등학교생이에요	학원

〈맞춤 영어권〉 3권의 목차와 문화 항목을 비교하여 분석했을 때 ‘제1과 우리 가족입니다 - 아파트와 한옥’, ‘제11과 우리 집에 오세요 - 서울과 뉴욕’, ‘제12과 우리 동네에는 가게가 많아요 - 한국의 학제’는 단원의 내용과 문화 항목의 관련성이 부족하다. 앞서 내용의 아동 적합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주제와의 유기성을 고려해야 함을 지적하였다. 따라서 해당 단원들의 주제는 본 단원과 관련성이 높은 내용으로 수정하면 개선될 수 있다. 또한 제5과부터 제7과까지는 ‘운동’과 관련된 주제로 문화 항목이 구성되어 있는데 비슷한 주제의 연속은 지루하게 느껴질 수 있기 때문에 수정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특히 제2과의 ‘애완동물’, 제5과의 ‘축구와 야구’, 제8과의 ‘도서관’은 아동 적합성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문화 항목이기 때문에 새로운 문화 항목으로의 교체가 필요하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12과의 문화 항목 ‘한국의 학제’는 해당 나이대의 학습자들에게는 다소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어 새로운 문화 항목으로의 대체가 필요하며, 제

15과의 문화 항목 ‘인사동’ 또한 다소 지엽적인 주제라고 할 수 있어 해당 급수의 학습자들에게는 더욱 보편적인 주제의 문화 항목으로 대체하여 교수할 것을 제안한다. 다음의 <표 11>은 <맞춤 영어권>의 기존 문화 항목을 수정한 내용이다.

표 11. 『맞춤 한국어 3 영어권』 문화 항목 수정안

목차		문화 항목
제1과	우리 가족입니다	가족의 모습
제2과	나는 강아지를 좋아해요	삶의 모습
제3과	미나는 눈이 예뻐요	호돌이와 샘
제4과	음악회에 자주 안 가요	판소리와 오페라
제5과	내 취미는 야구하기예요	교통수단
제6과	아빠하고 축구를 해요	투호와 말굽던지기
제7과	나는 야구도 좋아해요	운동회
제8과	도서관에 자주 가요	공공 기관
제9과	한국어를 공부해요	문방사우
제10과	옆 건물에 있어요	4대문
제11과	우리 집에 오세요	아파트와 한옥
제12과	우리 동네에는 가게가 많아요	전통시장
제13과	기념품을 선물해요	한복과 노리개
제14과	경치가 아름다웠어요	한국의 국립공원
제15과	서울에 갔어요	서울과 뉴욕
제16과	저는 초등학교생이에요	학원

새롭게 수정된 단원은 제1과, 제2과, 제5과, 제8과, 제11과, 제12과, 제15과이다. 먼저 제1과에서 다루던 ‘아파트와 한옥’이라는 문화 항목은 ‘집’을 주제로 한 제11과로 옮겼다. 그리고 제15과의 문화 항목인 ‘인사동’을 제11과에서 다루던 ‘서울과 뉴욕’이라는 주제로 대체한 후 삭제했다. 제15과의 주제를 ‘서울’이라고 보았을 때 ‘서울과 뉴욕’이라는 문화 항목이 해당 단원과 더욱 적절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제1과, 제2과, 제5과, 제8과, 제12과의 경우 <표 10>을 참고하여 새로운 문화 항목으로 기존의 항목을 대체하였다.

예를 들어, 제1과의 새로운 문화 항목인 ‘가족의 모습’은 <표 10>에서 제시한

초등 3~4학년 사회과 교육과정의 내용에서 선정한 주제이다. 특히 학습 대상인 초등학교 2~3학년 아동들에게 맞출 필요가 있고 이에 따라 교육과정에 제시된 ‘가족의 모습과 역할 변화’ 단원의 성취기준을 살펴보았다. 그리고 그중, 옛날과 오늘날의 가족 형태(확대 가족, 핵가족)를 비교하고 시대에 따라 달라진 가족의 모습을 소개하는 것으로 내용을 제시할 것을 제안한다(국가 교육과정 정보 센터 2025). 해당 내용을 교수할 때는 가족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동화를 준비해 시대별로 달라진 가족의 모습을 가르치고 서로 다른 모습의 가족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제12과의 경우, ‘한국의 학제’라는 주제가 다소 어려운 내용이라는 점에서 더욱 친숙한 항목으로 대체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동네’와 ‘가게’라는 주제어와 연결하여 초등 3~4학년 사회과 교육과정에서 다루고 있는 ‘전통시장’이라는 소재로 문화 항목을 대체했다. 현행 사회과 교육과정의 ‘필요한 것의 생산과 교환’이라는 단원에서 ‘전통시장’에 대한 내용이 등장하는데, 특히 생산과 소비라는 주제를 시장과 함께 다루고 있다는 것이 특징이다. 하지만 앞에서 제시한 문화 교육 항목은 해외에 거주하는 초등학교 2~3학년 아동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전통시장’에 대해 간략하게 소개하는 것으로 내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 또한 시장을 배경으로 역할 놀이를 구성하여 장보기, 물건 판매하기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도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다. 이는 아동 학습자들의 흥미를 끌어 학습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하고 문화 교육을 하는 동시에 의사소통의 기능을 효과적으로 기르는 데 도움을 줄 것이다.

## 6. 결론

본고를 통해 재외동포 아동에게 미치는 문화 교육의 중요성과 재미동포의 문화 교육 현황에 대해 살펴보았다. 또한 선행 논의를 바탕으로 ‘내용의 아동 적합성, 활동의 아동 적합성, 자료의 아동 적합성, 상호문화적 관점의 반영 정도, 다른 기능과의 연계 정도’라는 다섯 가지 분석 기준과 세부 기준을 마련하여 재미

동포 아동 대상 교재의 문화 교육 적절성을 검토하였다. 그리고 재미동포 아동을 위한 문화 교육 방안 및 교재 구성을 제시하였다.

『맞춤 한국어 영어권』은 매 단원의 마지막 한쪽을 문화 교육에 할애하며, 학습자 모어를 통해 아동의 시각에 맞춘 문화 항목을 대체로 적절하게 제시하고 있다. 그리고 상호문화주의적 시각을 반영하고자 시도하여 한국과 미국의 중요한 문화 요소를 비교 및 대조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본교재 안에서는 문화 관련 활동을 찾아볼 수 없었으나 교사용 지침서에 활동과 수업 지침이 제공되고 있다는 점도 특징으로 볼 수 있다.

다만 분석 기준별로 개선이 필요한 사항이 있어 이에 대한 보완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 특히 아동 학습자의 나이대를 고려하지 않은 일부 어려운 주제, 학습 활동으로 참고하기 어려운 지침, 단편적인 시각 자료의 제시 등이 한계로 꼽혔다. 또한 다른 언어 기능과의 연계를 적극적으로 시도하여 문화 교육과 언어 교육이 함께 이루어질 수 있는 방안에 대해 고민할 필요가 있음을 지적하였다. 그리고 국내의 교육과정을 참고하여 아동 학습자에게 적합한 문화 요소를 제시하고자 기존 교재의 단원을 재구성하였다.

이처럼 재미동포 아동을 위해서는 다양한 문화 항목 선정보다 나이에 적합하고 거주국의 문화와 잘 어우러진 문화 항목이 무엇인지 고민하는 일이 우선시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국내와 거주국의 교육 현장 및 사회적 현실을 반영한 실제적인 문화 요소의 선정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교신: 남소현(연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박사과정)(sohyuni@yonsei.ac.kr)

Correspondence: Sohyun Nam(PhD Student, Dept. of Korean Language and Literature, Yonsei University)(sohyuni@yonsei.ac.kr)

2025.01.16 접수, 2025.01.21 심사, 2025.02.19 게재확정

## 참고문헌

- 공하림, 2017, 재외동포 학습자를 위한 한국문화 교수-학습 방안 연구, 민족연구, (69), 41-57.
- 공하림·부수현, 2016, 재외동포 교육용 한국어 교재 문화 요소 분석 및 단원 구성 방안 - 상 호문화 접근법에 기반하여, 문화와 융합, 38(2), 37-63.
- 곽경숙, 2020, 한국어 문화 교육 교재에 나타난 문화 항목 제시 방식에 관한 연구, 광신논단, 30, 187-204.
- 국가 교육과정 정보 센터, 2025, 2015 개정시기 초등학교 사회과 성취기준, <http://ncic.re.kr/mobile.index2.do>.
- 김선정 외, 2011a, 맞춤 한국어 1 영어권, 교육과학기술부.
- 김선정 외, 2011b, 맞춤 한국어 2 영어권, 교육과학기술부.
- 김정숙, 2008, 재외동포용 한국어 교재 개발 방안 연구 -초급 1단계 교육 내용을 중심으로-, 이중언어학, (37), 61-83.
- 김중섭 외, 2011a, 맞춤 한국어 5 영어권, 교육과학기술부.
- 김중섭 외, 2011b, 맞춤 한국어 6 영어권, 교육과학기술부.
- 김태진, 2014, 재미동포 한국어 학습자 정체성 구성 요인과 계승어 교육, 이중언어학, (54), 99-122.
- 박혜경, 2013, 아동 학습자 대상 한국어 교육의 범주 설정을 위한 연구 동향 분석, 국어국문학, (165), 237-280.
- 성상환, 2010, 서구의 다문화교육과 아동의 정체성 문제, 다문화교육, 1(1), 37-47.
- 외교부, 2025, 재외동포 정의 및 현황, [https://www.mofa.go.kr/www/wpge/m\\_21507/contents.do](https://www.mofa.go.kr/www/wpge/m_21507/contents.do).
- 이성은·오은순, 2002, 문학중심 총체적 언어교육 활동 개발 연구, 한국초등국어교육, (20), 193-225.
- 이수지·권화숙, 2017, 공감 기반 한국문화교육 교육 방안 연구, 2017 한국어언어문화교육학회 제24차 전국학술대회 자료집, 185-200.
- 이유경, 2015, 재미동포 한국어 학습자를 위한 한국어문화 교육 방안 -프로젝트 수업을 활용하여-, 2015년 국제한국어교육학회 춘계학술발표논문집, 243-258.
- 이정란·이해영, 2014, 재외동포 아동을 위한 학습자 중심 한국어 교재 개발, 이중언어학, (56), 267-290.
- 이정민 외, 2013, 종이접기 활동이 발달장애아의 지각-운동 능력에 미치는 영향, 초등특수교육연구, 15(1), 97-127.
- 이정희, 2015, 재미동포 아동의 문화 간 의사소통능력 신장을 위한 한국어 기반 문화 교육, 한국어교육, 26(2), 155-180.

- 이혜영 외, 2011a, 맞춤 한국어 3 영어권, 교육과학기술부.
- 이혜영 외, 2011b, 맞춤 한국어 4 영어권, 교육과학기술부.
- 이희숙·김남경, 2018, 재외동포 대상 한글학교의 현황과 과제, 민족연구, (72), 116-139.
- 임현혁·최재혁, 2012, 교과서 편집디자인의 시지각적 개념 공유화 방안 - 2007년 개정 교육 과정에 따른 초등학교 과학 교과서를 중심으로, 브랜드디자인학연구, 10(4), 285-302.
- 재외동포청, 2025a, 전 세계 지역별 한글학교 지원 현황(2024년 기준), [https://study.korean.net/servlet/action.cmt.NetAction?p\\_menuCd=m40201](https://study.korean.net/servlet/action.cmt.NetAction?p_menuCd=m40201).
- 재외동포청, 2025b, 한글학교 운영 서식, [https://study.korean.net/servlet/action.pds.DocuAction?p\\_menuCd=m40212](https://study.korean.net/servlet/action.pds.DocuAction?p_menuCd=m40212).
- 전한성, 2020, 재외동포 한국어교육의 목적에 관한 일고찰, 새국어교육, (122), 199-223.
- 정다운, 2020, 재외동포 아동 대상 한국어 문식성 향상 방안 - 학습 한국어 교육을 중심으로, 어문론집, 84, 419-447.
- 지민정, 2016, Korean-American students' beliefs about language learning: the effect of perceived identity, 한국어 교육, 27(2), 275-302.
- 최혜정, 2015, 유아영어교재 평가에 관한 연구,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15(2), 323-346.
- 한아름 외, 2009, 아동완구에 대한 색채 선호도 연구, 일러스트레이션 포럼, 10(20), 109-118.

## Cultural Education and Textbook Development for Korean American Children

Sohyun Nam\*

**Abstract** This study examines cultural education content in a Korean language textbook for Korean American children and proposes improvement strategies. Cultural education for overseas Korean children strengthens their self-identity, nurtures proactive attitudes in multicultural societies, and fosters confidence and openness toward language and culture, sustaining interest in learning Korean. However, due to practical limitations, cultural education remains insufficient. Thus, its enhancement and integration with language education are necessary. This study analyzes cultural education elements and suggests strategies for textbook development. The analysis identifies certain positive aspects, such as incorporating children's perspectives and an intercultural approach. However, several limitations exist, including unsuitable content for children, instructional materials that are difficult to use in activities, limited visual resources, and weak integration with language skills.

**Keywords** Overseas Koreans, Korean American, Korean Culture, Cultural Education, Korean Education as a Heritage Language

---

\* Yonsei University, Department of Korean Language and Literature, PhD Student, sohyuni@yonsei.ac.kr